우리 복지관은 지금 8. 연꽃어린이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을 위해



연꽃어린이집 재원생들이 지원 사찰인 도리사에서 돌탑 쌓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K-보듬 6000'은 1년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없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감싸안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돌봄 모델입니다.

'자비로운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 보육에 전념해 온 구미 연꽃어린이집은 이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누군가를 위해 24시간 문을 열어두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곧 살아있는 포교이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연꽃어린이집이 'K-보듬 6000'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 어느덧 2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부모님들의 사정은 저마다 간절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분들,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 혹은 갑작스러운 주말 업무로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연꽃어린이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도, 모두가 쉬는 공휴일에도 저희 선생님들은 변함없는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연꽃어린이집은 부모님이 안심하고 생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꽃만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꽃어린이집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는 학부모님의 격려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교직원들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매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즐거움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느라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해 어린이집을 작은 공연장으로, 때로는 신나는 놀이터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며 꿈을 키우고, 교실 가득 설치된 에어바운스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마당 풀장에서의 물놀이와 지원 사찰인 도리사를 방문해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스님과 함께 나눈 공양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정서적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는 더 깊은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비의 품에는 차별이 없듯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연꽃의 따스함을 온전히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꽃어린이집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 전담 교사 배치와 같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은 연꽃어린이집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더 깊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이 행복을 누리는 공간, 365일 사랑이 마르지 않는 '자비의 연꽃동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김성진
연꽃어린이집 원감

대만불교 포교일기 ④ 보살의 마음, 청년의 힘

박람회 너머 청년 관심, 신행으로 이어야

최근 막을 내린 불교박람회 현장은 그야말로 '청년들의 바다'였다. 그곳의 수만 명의 젊은 세대를 보며 필자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목격했다. 이제 불교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정신적 안식처로 다가가고 있다. 포교 일선에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설득력 있는 지표는 없다.

필자는 그 뜨거운 열기를 보며 불광산 창건주 성운 큰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다. "청년이 없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다"는 서원 아래 큰스님께서 제시하신 '보살의 마음, 청년의 힘[菩薩心 青年力]'이 바로 그것이다. 박람회에서 확인한 청년들의 관심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신행과 출가의 원력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 해답을 불광산의 역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사실 오늘의 불광산을 일군 뿌리는 바로 '청년'이었다. 1950년대 대만 이란(宜蘭)에서 전법을 시작할 당시, 성운 큰스님께서는 가장 먼저 청년 포교대를 조직하셨다. 불교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큰스님께서는 직접 집필한 원고를 청년들에게 주어 그들이 대중 앞에서 불교 강좌를 열게 하셨다. 스님의 지혜를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는 이 파격적인 방식은 당시 대만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놀라운 점은 7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큰스님과 함께 전법의 길을 걸었던 그 청년들이 오늘날 불광산을 지탱하는 거목이 됐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불광산을 만든 주요 원로 스님들과 전 세계에서 불광회를 이끄는 핵심 신도 리더들 대부분이 바로 그 시절 이란에서 큰스님과 함께 전국을 누비던 '청년 포교사'들이었다.

오늘날의 불광산 일군 뿌리는 청년
청년 붐빈 박람회서 韓불교 희망 봐
청년 교단 연계 강화·성장 방안 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람회에서의 일시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의 선(線)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배려다. 불광산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스카우트에서 시작된 인연이 불광청년단을 거쳐 성인 조직인 국제불광회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결합해 있다. 특히 불광청년단에는 '백상(白象)', '천마(天馬)', '금사자[金獅]'로 이어지는 정교한 간부 승급 제도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불광산 역사상 재가 청년의 최고 영예인 '금사자' 간부가 아직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천마' 단계에 도달해 리더십과 신심을 증명한 청년 간부들이 금사자가 되기 전 모두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행복한 역설'은 불광산의 청년 포교가 '출가자의 요람'이자 우수한 포교사를 길러내는 사관학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운 큰스님께서는 늘 청년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급(四給)'의 정신을 실천하셨다.

이란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강좌를 맡기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박람회에 열광했던 청년들에게 더 넓은 무대를 내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 다시 해보라"며 지지해 줄 때, 그들은 사찰을 자신의 집처럼 느끼며 '젊은 보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교박람회에서 본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어린 시절의 인연이 청년기를 거쳐 성숙한 포교사나 수행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단 내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70년 전 이란의 청년들이 오늘의 불광산을 만들었듯, 지금의 청년들이 훗날 한국불교의 주역이 되어 법륜을 굴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간절히 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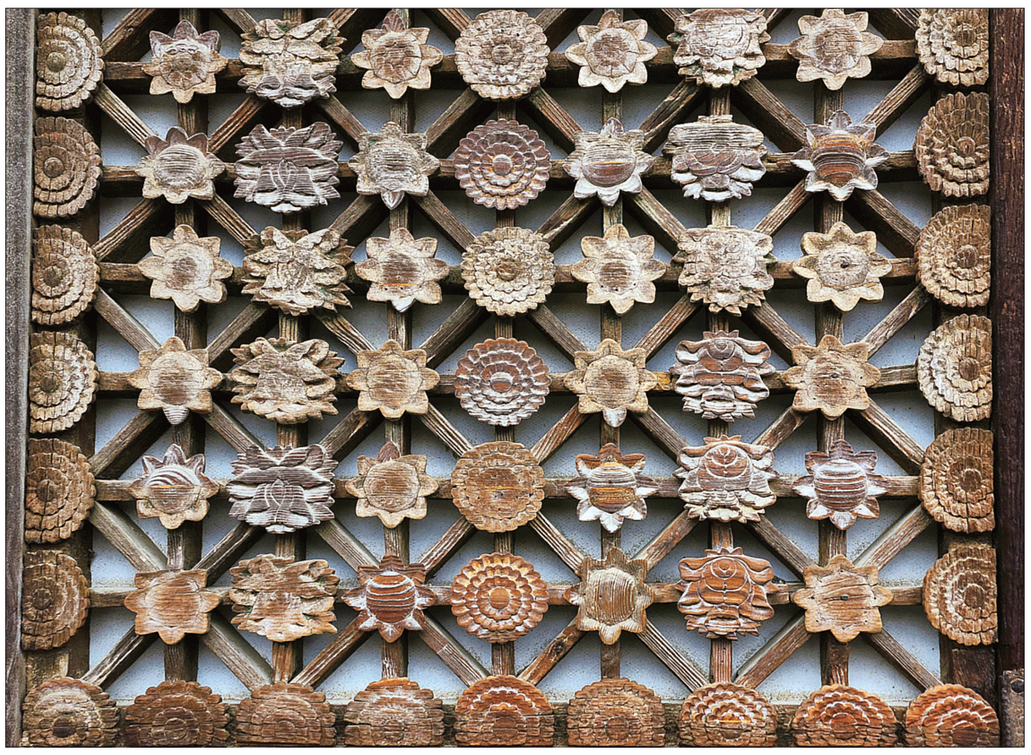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⑭ 사찰은 한국 전통문화의 미래

한국의 사찰은 전통문화의 보존뿐 아니라 계승과 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찰의 중창과 중건이 없으면 직업인으로서 전통 건축 분야의 장인은 존재할 수 없다. 좋은 건축주로서 스님들은 장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최고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통도사 적멸보궁의 꽃살문은 좋은 건축주로서의 스님들의 안목과 정성의 산물이다. 이 꽃문 앞에서 내 젊은 시절의 어떤 만남을 떠올린다.

1976년 가을, 남대문 근처 동방빌딩 19층에서 매우 정중하고도 인자한 노신사를 만났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었다.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 고단샤(講談社)에서 펴낸 도자기 도록을 보여주며 이렇게 찍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최적의 세트가 필요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얼마 후 비서실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다 갖추어 놓았으니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다행히도 결과물이 이 회장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후로 나는 디지털 사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호암미술관의 사진을 찍었다. 대단한 행운이었다. 충분한 보수를 받았고 덕분에 인사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찰은 한국 전통문화를 담지할 뿐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장인들의 후견인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우리 사찰의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손영자 작가



통도사 적멸보궁.

